

‘거포 유망주’ KIA 한승연 “용병처럼 활약할 것”



KIA타이거즈 외야수 한승연이 1군 무대 첫걸음을 내딛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입단 동기인 김도영, 최지민, 윤도현, 황동하에 이어 팀을 이끌어갈 ‘숨은 퍼즐’로 떠오른다. 프로 입단 5년 차인 한승연은 지난 2일 꿈에 그리던 1군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는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리그 KT위즈와의 경기에서 좌익수 겸 7번 타자로 데뷔 첫 선발 출전했다. 그는 이날 팀이 2-0으로 앞선 6회 1사 1루 상황에서 상대 5구째 체인업을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장타로 주자를 불러들였다. 데뷔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하며 첫 타점까지 올렸다. 긴 시간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던 한승연에게는 남다른 의미였다. 2022년 2차 8라운드 전체 75번으로 입단한 그는 오랜 기간 퓨처스리그에서 기회를 기다렸고, 상무 복무까지 마지며 묵묵히 준비해왔다. 지난해 마무리캠프, 올해 스프링캠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력한 타구를 생산해내며 안현민(KT)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올해 퓨처스리그에서는 27경기 101타수 33안타

2홈런 20타점 타율 0.327 OPS(출루율+장타율) 0.880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증명했고, 마침내 1군 콜업 기회를 잡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창원 NCD아노스전을 앞두고 엔트리에 등록된 그는 29일 꿈에 그리던 1군 데뷔전을 가졌다. 그러나 2타석에서 삼진 2개로 물러났다. KT전은 달랐다. 데뷔 첫 선발, 첫 안타, 첫 타점이 쏟아진 하루였다. 한승연은 첫 안타 순간에 대해 “좋기도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면서

만, 탈리기에서도 뒤쳐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김)도영이외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올해 타석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그는 “올해는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칠공과 버릴 공을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졌다”며 “내 스윙을 늦지 않게 가져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는 분명하다. 한승연은 “하나를 하면 끝장을 보자는 성격이다. 팀에 ‘용병 두 명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첫 안타를 쳤으니 다음 목표는 첫 홈런”이라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올 시즌 데뷔 첫 선발전 의미...2루타로 타점 뽑아내 동기 황동하와 활약...‘김도영 등 시너지 효과 기대’

도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들에 대해 나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던 순간”이라고 돌아봤다.

특히 동기 김도영, 황동하 등과 함께 그라운드를 밟는다는 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한승연은 “드래프트 동기들과 1군에서 함께 뛰는 게 목표였는데, 현실이 되니 더 힘이 난다”며 “같은 그라운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 김도영 역시 한승연의 첫 안타에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183cm·93kg의 탄탄한 체격을 갖춘 한승연은 파워와 주력을 겸비한 ‘5툴형’ 외야수로 평가받는다.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체격을 키운 그는 “몸이 좋아 보여 느려 보인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 감독은 “좋은 피지컬과 파워를 갖춘 선수로, 좌투수 상대 강점도 있다”며 “팀에 필요한 우타 외야원으로 키워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운동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고, 김도영과의 시너지 효과도 긍정적이다. 정교함을 보완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타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1군 무대에 선 한승연이 우타 외야의 새로운 해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국 야구 꿈나무 광주 집결...대통령배 대회 열전

15일까지 무등야구장서 경쟁...전국 32개팀 960여명 참가 지역 수창초·대성초·송정동초 출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 유소년 야구 꿈나무들의 축제인 광주에서 막을 올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대통령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지난 5일 개막, 오는 15일까지 10일간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2개 팀 96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툰다. 결승전은 오는 15일 개최된다. 참가 자격은 2025년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4강 이상 1회 또는 8강 이상 2회 진출한 팀에게 주어졌다. 전국 각지의 강호들이 총출동한 만큼 수준 높은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대성초, 수창초, 송정동초 등 3개 팀이 출전해 전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수창초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이자 ‘제22회 황타령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팀



(왼쪽부터) 김성한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강혜정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으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대회 첫날인 지난 5일 오전에는 대성초와 울산 대현초의 개막 경기가 열렸다. 별도의 개최식 없이

곧바로 경기에 돌입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무등야구장을 찾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열린 개막 경기에서는 전갑수 시체육회장이 시구를, 강혜정 광주야구협회 이사가 시타를 맡아 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날 연휴와 맞물려 전국 각지 선수단과 학부모, 관계자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야구의 도시 광주에서 전국 유소년들의 수준 높은 대회가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전국의 야구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최고의 경기를 펼치고, 맛과 멋의 고장 광주의 매력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학생체전 선수단 준비 ‘착착’

참가 준비 2차 실무자회의 개최 선수복·ID카드 배부 점검 나서 역대 최대 규모 296명 파견키로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전남도교육청은 6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준비를 위한 2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인성학교 등 도내 9개 특수학교와 22개 시·군 교육청 관계자 등 60여명의 실무자가 참석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추진사항 보고, 등급 통합 조정 결과 및 대진추첨 안내, 전남 선수단 지원 및 협조사항, 선수복 및 ID카드 배부 등이 진행됐다. 오는 12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서 전남은 11개 종목에 총 296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



전남도장애인체육회와 전남도교육청은 6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준비를 위한 2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해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식,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159명을 비롯해 감독 44명, 코치 30명, 보호자 32명, 임원 31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디스크골프 종목에 처음 출전하는 등 전년 대비 1개 종목과 31명의 선수단이 증가했다. 전남은 경기(292명), 부산(168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 선수단을 구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 참가 기록도 세웠다. 도장애인체육회와 도교육청은 보다 많은 학생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승리기원 시구...축구 국대 엄지성 초청

오늘 한화전...‘야구 팬들과 응원’

KIA타이거즈가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홈경기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엄지성(사진)을 승리 기원 시구자로 초청한다. 2021년 광주FC에서 프로 데뷔 무대를 치른 엄지성은 이후 K리그에서 4시즌을 뛰고 영국 EFL 챔피언십의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했다. 엄지성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A매치 8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중이다. 엄지성은 “광주FC에서 뛰었던 만큼 광주는 나



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KIA타이거즈의 시구자로 함께하게 돼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년에 처음 직판한 뒤 야구에 매료돼 지금까지도 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있다. 시구뿐만 아니라 야구장을 찾은 팬들과 함께 열렬히 응원하며 승리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U18 금호고, K리그 주니어 제패

전반기 최종전 용인FC U18에 완승 왕중왕전 진출...박건후 8경기 11골

프로축구 광주FC U18 금호고등학교가 K리그 주니어 전반기 정상에 올랐다. 광주 U18은 최근 광주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용인FC U18과의 ‘2026 K리그 주니어 고등 축구 리그’ B권역 전반기 최종전에서 5-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광주 U18은 전반기 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전기리그 우승에 이은 2년 연속 정상 등극이자, 왕중왕전 진출권까지 확보한 값진 성과다. 광주 U18은 이번 리그에서 5승 2무 1패를 기록했다. 울산 HD FC U18 현대고와 승점은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도 광주 U18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폭발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선두

자리를 지켜냈다. 특히 공격수 박건후는 8경기에서 11골을 터뜨리며 경기당 1골 이상의 득점력을 과시, 팀 우승의 선봉에 섰다. 이번 우승은 광주 유소년 시스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 광주 U18은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꾸준한 경기력 향상을 바탕으로 K리그 유소년 강호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선수들의 성장과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오한 광주 U18 감독은 “몇 개월간의 장기 레이스에서 선수들의 꾸준한 경기력을 보며 작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뤘다고 느꼈고, 이게 곧 좋은 성과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첫 걸음을 뒀을 뿐이다. 좋은 대회 성적은 물론 프로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U18은 ‘2026 K리그 주니어 고등 축구리그’ B권역 전반기 최종전에서 5-2로 승리했다. 사진제공=광주FC